

믿음의 회복, 나니 두려워 말라 (마 14:22-33)

I. 부르심의 회복, 너는 내게 돌아오라 (이전 메시지)

- A. 우리는 험난한 주변 상황과 초라한 현실(스 4:4-6; 학 2:3)로 인해 마음을 잃고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 부르심을 잃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을 향한 부르심은 여전하며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그분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신다 (학 2:3-9; 슥 1:3).

... 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흠정역: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 ⁵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 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 ⁹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 (학 2:3-9)

II.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도우려 오신 예수님

- A.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에서 제자들은 밥을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벳세다로 보내신다 (막 6:30-32). 하지만 이 곳에서는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대형 사건(오병이어)이 일어난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바구니를 날라야 했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쉼을 위해 보내신다. 제자들은 쉼이 필요했다.

³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12제자의 파송, 막 6:7-13)을 낱알이 고하니 ³¹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원문: 광야)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³²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벳세다)에 갈새 (막 6:30-32)

- B.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반 동안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시며 사역하셨으며, 이는 성격 상 크게 3차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시간들 동안 1차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심), 2차에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부르심의 확정), 3차에서 더 많은 기적과 십자가에 대한 예언으로 제자들을 준비시켜 나가시며 12제자를 예수님 없이 따로 보내시는 것도 볼 수 있다 (훈련, 성장).
- C. 예수님은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고 "쉼을 주시는" 분이시며, 제자들의 필요를 알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 그분은 이를 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 D.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신 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홀로 산으로 사라지신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요 6:14-15). 이 가운데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난다. 이날 오후 벳세다로 올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함께 타고 계셨지만, 지금 폭풍우를 만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배에 함께 계시지 않고 따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너무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흙정역,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 14:22-24)

- E. **배가 ... 수리나 떠나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한 가운데에 도달했는데, 바람도 거슬러 불고 파도가 일어나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전하는 상황이었다 (막 6:47-48; 요 6:18). 제자들은 아직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쉬지도 못했으며,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상당히 오래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쉬라고 보내셨는데, 방향을 잘못 알려주신 것 아닐까?”

- F. **밤 사경에:** 예수님은 해가 저물기 전에 그들과 헤어지셨고, 현재 시간은 밤 사경(새벽 3~6시)이 되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오실 지 상당히 궁금하다 못해 인내와 힘이 바닥났을 타이밍이다 (정상적이면 3~4시간이면 반대편에 도착해야 했다). 이때에,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신다. 갈릴리 바다가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인 것을 감안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5~10km를 물 위를 걸으셨을 것이다!

25 밤 사경(새벽 3-6시 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 14:25-27)

- G.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때 사람들은 바다에 악한 영이 살고 있다고 믿었고, 또는 과거에 물에 빠져 죽은 이들의 영혼이 바다를 돌아다닌다고 믿고 있었기에, 풍랑을 만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은 그들에게 적잖은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줬을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제자들을 위해 행하신 것이었다. 오병이어도,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이는 모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들이었다.

- H.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갈릴리 물 위를 걸으셨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고, 이는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3)라는 말씀으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관찰해서 나오는 일관된

법칙들을 기반으로 세워지며, 관찰자의 입장에 있는 과학이 창조주의 하시는 일을 다 설명하는 것은 “그저 불가능”하다. 이 기적을 믿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이다.

- I. 삶이 앞뒤가 맞지 않고, 언제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지 계산도 서지 않을 때에, 그분은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니 두려워 말라”. 과거에 1년 전 쯤, 예수님은 동일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배에서 풍랑을 만나 이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 (마 8:23-27). **우리는 과거에 선했던 그분이 우리 삶 위에 여전히 선했음을 신뢰해야 하며,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 부른다.**

III.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인간, 베드로

- A. 아직 예수님이 배에서 물 위에 서 계실 때,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적을 맛볼 기회를 주시길 요청한다. 베드로는 다른 것을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굳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이미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이를 행하실 것이라는 충만한 믿음이 이미 있었다 (아니었다면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 바람을 보고 (흠정역,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 B. 이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인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 물론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 물에 빠진 인물로 유명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대단한 믿음의 도약을 경험했고, 자신의 믿음의 바닥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성장할 큰 기반을 닦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 상황에서 바람은 세계 불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 서 계셨다. **상황은 변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 28:20).

- C. **믿음이 작은 자여:**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있지만 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닌 “신뢰가 거의 없다”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좀 더 풀어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해주신다. 베드로는 사나운 바람이라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나머지, 예수님을 놓쳐버렸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상황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버렸다.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날 좀 더 믿어보지 그랬느냐**”.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 14:28-33)

- D.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며, 우리는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을 세워 나가기 위해 주변을 살펴야 하지만, 이 현실 위에 그분이 온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은 모두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분은 이 일을 통해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 E.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작동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진리가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신뢰"가 생기게 되며, 우리는 다른 말로 이를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표현한다. 물론 아무 것도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요 20:29).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부족해서 이번엔 실패했지만, 그는 사도 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 교회를 이끄는 놀라운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된다** (행 2:14-41; 3-5장, 8:14-25; 10:9-11:18; 12:1-19; 15:7-12).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에 반응해주시는 분이시다 (애 3:24-26).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신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를 선하시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애 3:24-26)

- F.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이유로건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이 있다면, 과거 믿음의 여정을 걸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최대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또는 았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는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최대의 기회가 된다. 믿음은 지금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히 11-12장)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필수로 인내를 동반한다.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6-39)

- G.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등이 믿은 것은 심판이 임한다거나 약속의 땅이 꼭 있을 것이라는 "약속 자체나 상급"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고, 그분이 이를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믿음의 세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이를 통해 상황이 어려운 때를 지나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세대이다. **아비와 어머니 세대에 회복된 이 믿음은 전염병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될 것이다.**